

친환경농업·직거래 장터 선도 '혁신농협'

농협, 새 희망을 연다

광주농협

국립공원 무등산을 낀 도·농 복합형 농협인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은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만들기'를 기치로 미래의 농협을 선도해 가는 혁신농협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81년 지역단위 조합의 합병으로 설립된 30여년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광주농협의 가치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통찰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맛 나는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찾은 해법이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직거래 장터다. 조합원 고령화와 퇴화한 농업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성공 열쇠가 됐다.

지난해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와 함께 친환경 농업아카데미를 개설해 일명 '친환경농업박사' 졸업생 100여명을 배출한 광주농협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친환경 농업 관련 과정을 추가해,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시설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농협은 올해 초 총사업비 13억원(보조금 5억3300만원 포함)을 들여 친환경농산물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등을 두루 갖춘 2970㎡(900평)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을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판매사업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협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믿고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직거래 장터 사업도 모범이다.

조합원들이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두 암동 본점과 문화·오치·일곡직점 등에 하나로 마트를 열었으며 이 중 본점과 매곡동 하나로마



광주농협은 최근 광주시 북구 망월동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옆 텃밭에서 Eco-green 텃밭체험학습장을 개장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선도하는 혁신농협이다. 개장식 행사와 함께 열렸던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와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 모습.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자산 1조 전국 평가 1등급 농협

친환경아카데미 농업박사 배출

광주 최초 '준조합원 배당' 실시

트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며 친환경농산물을 거래하고 있다. 또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올해 6600~1만㎡(2000~3000평) 규모의 로컬푸드 시설하우스를 설치해 자급단으로 시설투자가 어려운 조합원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현재도 자산 규모가 1조원이 넘고 전국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는 건실한 농협이지만, 광주농협이 1등 농협으로 인정받는 것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을 이루고 가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 농협이 갖추지 못한 유·무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광주지역 농협 최초로 '준조합원 배당'을 실시하는가하면 친환경 수도작 재배 자재지원 인증 사업을 벌이고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을 검토하는 등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편익제공에 앞장서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농협 임·직원은 이러한 율동한 경영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이 광주농협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며 열심히 뛰고 있다.

박종일 광주농협 지도·경제 상무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기반조성과 교육,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자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등산 테마로 특화 농산물 개발 할 것"

한진섭 조합장

"무등산을 테마로 한 수박 등 특화한 농산물을 개발하고 친환경농업아카데미를 활성화해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대 조합장 당선 이후 2년만에 동시선거로 재선에 성공한 한진섭(62) 광주농협 조합장은 "저를 뽑아주신 조합원의 선택에 후회 없이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 조합장은 "고령화와 이에 따른 영농기술의 후퇴가 현재의 농업 위기를 가져왔다"며 "농촌의 희망을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이익 극대화"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와 청소년이 사라진 위기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현장에 있는 조합원과 조합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 조합장은 "로컬푸드 등 하나로 마트 사업 개선, 한우백화점 추진 등으로 돈버는 경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판매농협을 실현하고 투명위원회를 통해 각종 사업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청렴한 광주농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금리 허덕' 대학생·청년 위한 전환대출 나온다

햇살론 개편 ... 금리 연 4.5~5.4%

신용회복위원회가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비교적 저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고금리 전환대출의 문턱을 낮췄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개편해 대학생과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을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진행하던 고금리 전환대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춘 것이다. 전환대출 조건을 애초 연이율 20% 이상 대출에서 연 15% 이상 대출로 문턱을 낮추고 적용 대출금리는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내렸다.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7년 이내로 대출금을 갈아야 한다.

대학생,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군필자는 만 31세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 연 소득이 최소 4000만원이 되어야 한다.

신복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이 전체의 90% 수준인 약 164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복위는 또 이번엔 신복위 보증으로 대학생·청년층이 은행권에서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전까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대학생, 청년을 위한 저리 대출 제도가 있었지만 신복위가 다루는 청년층용 생활자금대출 상품은 따로 없었다. 신청자 요건은 고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와 같다. 금리는 연 4.5~5.4%로 최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에 내놓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27일부터 신복위 전국지부나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서 보증 승인을 받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16개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가계·기업 절반 "5만원권 보유 목적은 비상용"

한은, 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가정과 기업에서는 5만원권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을까. 5만원권을 보유한 가계와 기업의 절반가량은 당장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시'에 대비할 목적으로 쟁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주체별 현금 사용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5만원권을 보유한 목적에 대해 가계 응답자의 47.4%(5만원권 보유자 기준)가 '비상시 대비 등 예비적 목적'으로 5만원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응답은 42.1%, 경조사비 지출 목적 응답은 10.2%로 조사됐다.

5만원권을 물품 구매나 지급결제의 수단인 아닌 비상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가계가 보유자의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기업 응답자의 경우도 49.7%가 예비적 목적으로 5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해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5만원권을 인출하는 데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가계 응답자의 11.5%는 5만원권 인출 시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기업



응답자는 이 비율이 16.4%로 더 높았다. 5만원권 인출과 관련해 불편을 겪은 원인으로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5만원권 부족'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5만원권을 불충분하게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가계 20.5%, 기업에선 15.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가계 1000 가구, 중소기업 1000 곳을 대상으로 방문면접과 팩스·이메일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땅값 광주 0.59%, 전남 0.53% 올라

올 1분기(1~3월) 전국 땅값이 작년 4분기보다 0.48% 오르며 2010년 11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소폭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국토교통부가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올랐다. 수도권 땅값 상승률은 0.46%로 19개월 연속 땅값이 소폭 오른 서울시(0.57%)가 으뜸세를 주도했다. 광주도 0.59%, 전남은 0.53%의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16	21	23	24	30	2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89,725,608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8,060,907	44
3	5개 숫자일치					1,600,677	1,596
4	4개 숫자일치					50,000	79,202
5	3개 숫자일치					5,000	1,351,926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경북총판 - 모직종
- 강원총판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마스코트 제품 및 포장타입의 취급권을 위 총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태, 권의현, 천지람에 등 달레스메인 자질을 받으신 모든 경우)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